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1부) 오전 7:30 · 인도 : 김요셉 목사, 설교 : 정운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김요셉 목사, 설교 : 정운돈 목사

- ★ 예배의 부름
- ★ 응답송
- ★ 신앙고백
- ★ 경배의 찬양
- ★ 고백과 주기도
- ★ 성서교독

인도자
 찬양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계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이다.”
 사도신경 / 다같이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같이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59. 시편 136편 / 인도자와 회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썩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2)

- 찬송
- 중보의 기도
- 성경봉독
- 찬양
- 말씀의 선포
- 봉헌
- 성찬식
- 교회소식
- ★ 결단의 찬송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 다같이
 (1부) 손정환 집사 (2부) 여준석 장로
 누가복음 1:1-4(신약 86쪽), 사도행전 1:1-2(신약 187쪽) / 인도자
 그 말씀 따라가네(아브라함의 노래) / 시온찬양대
세상의 틀을 바꾼 의사 누가 -복음으로 여는 누가복음- / 설교자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 다같이
 분병, 분잔 / 다같이
 인도자
 언약의 사람아(1절) / 다같이

언약의 사람아 애굽과 광야를 두려워 말라 요단 앞에서 당황치 말라
 언약의 사람아 하나님 언약을 체험하리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리라
 여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나와 나의 사명을 체험하리라
 그날은 정녕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 ★ 파송의 말씀
- ★ 봉헌기도·축도

인도자
 정운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신성원 집사 (2부) 김경희A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2:30 · 인도, 설교 : 김요셉 목사

RUTC뉴스	영상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다같이
기도	최해숙 권사
성경봉독	히브리서 11:1-6(신약 365쪽) / 설교자
꽃기족 찬양	이정윤 집사 가정
설교	현장복음메시지 11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 설교자
찬양	185장. 이 기쁜 소식을 /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찬양	세상의 틀을 바꾸라(1절·주보 13면) / 다같이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곳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삶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된 나 늦게 알았네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꿈 속에서 세상의 틀을 바꾸리	
축도	최정웅 원로목사

다음 주 기도 : 이순덕 권사

다음 주 꽃기족 찬양 : 참사랑 비전스쿨

수요기도회

오전 10:30 / 오후 7:30 · 인도, 설교 : (오전) 정운돈 목사 (오후) 김요셉 목사

기도	(오전) 설정화 집사 (오후) 김영진 집사
설교	(오전) 창세기사도행전 강해 (오후) 전도캠프 강해

다음 주 기도 : (오전) 윤순옥 집사

(오후) 김창균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 인도, 설교 : 정운돈 목사

찬양과 기도	다같이
설교	설교자

다음 주 금요심야기도회 : 찬양예배 및 기도회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신성민 전도사
(목) 김요셉 목사

(화) 이현규 전도사
(금) 정운돈 목사

(수) 김요셉 목사
(토) 이희숙 전도사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층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는 매주일 오전 10시 20분에 2층 식당 새가족(VIP)실에서 있습니다.

■ 교회소식

1. 오늘은 램네톨신학연구원(RTS)주일입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를 살릴 목회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현장인 램네톨신학연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함께 중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9월 새벽헌신예배가 9월 2일(월) 오전 5시 30분에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3. 이번 주 금요일야기도회는 찬양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4.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강남지회 제20기 70인 1차합숙 훈련을 받으실 성도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정 : 9월 22일(주일)~25일(수), 주일-오후 6~9시, 평일-오후 7시 30분~10시, 강사 : 오권성 목사, 등록현금 : 15만원) 5층 로비와 교역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성도 가정의 장례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조문해 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자 권사(이수용 장로) 부친 故 이한수 명예장로 / 8월 26일 소천, 8월 28일 발인)
2. 성도 가정 램네톨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김경현-강소영 집사 가정, 첫째 김유은 램네톨 8월 28일 출생)
3. 교역자들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윤돈 목사 : 9.7 핵심 - 예원교회 (2) 최정웅 원로목사 : 9.3~13 호주 시드니
4.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덕 권사,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황미야 집사, 이숙자 권사, 윤기영 집사, 윤순옥 집사, 김미선 권사, 이순덕 권사, 손정환 집사, 박종열 집사, 이군재 장로)
5. 9월 기도수첩을 1층 사무실에서, 전도자료 및 미디어자료는 주일 점심시간동안 2층 식당 앞 자료판매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암송 찬양 CD 판매 수익금은 전액 헌당헌금으로 드려집니다.)

■ 훈련 및 집회소식

1. 태영아 전도학교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3층 제2램네톨실에서 있습니다. (강사 : 최세운 목사)
2. 북미주산업인대회가 “문 닫는 미국교회를 살리자(왕상 18:1-15)”를 주제로 9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미국 시애틀 힐턴벨뷰호텔에서 열립니다.
3. 9월 새가족 및 현장사역자수련회가 9월 10일(화)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제45기 결혼예비학교가 9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추석연휴기간동안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청년, 대학생 및 부모, 사역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644-4045 / 070-7565-4032)

RUTC를 위한 30만의 원네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워져 가는
RUTC! GO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8.26)

9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성찬식(1), 새벽헌신예배(2) / RTS주일(1), 북미주산업인대회(2~4, 시애틀)
2주차	목사, 목사후보생, 전도사고시(9) / 새가족 및 현장사역자수련회(10)
3주차	시찰회 및 상비부모임(17) / 교단정기총회(16~18), 램턴트데이(21, 부산)
4주차	교회창립52주년 기념예배, 찬양대 헌신예배(22), 강남지회 70인1차합속훈련(22~25) / 화요집회(24)
5주차	열린찬양예배(29)

9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현금위원	(위원장) 정세완 (위원) 여상훈 유승환 정문철 김창대 도정호 구자성 이서은 이선아 배미선 이은순B				
성찬위원	(5층)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리종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A 김요한 (6층) 배승찬 양경심				
안내위원	(위원장) 오국환 (1층) 이현주 임소순 이은순B 이서은 (5층) 김창대 도정호 이기에 강공이 (6층) 이수산A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식당봉사	9.1	9.8	9.15	9.22	9.29
	오금5, 6	오금7, 성내둔촌	오금8, 가락	오금9, 거여마천	문정, 장지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 오직 예수로 행복함 교회(행4:12)로서, 언약과 비전, 꿈과 이미지, 실천을 통해 성령으로 한해동안 인도받도록
 - (1) 참된 행복이 없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음을 전하도록
 - (2)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삶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체현하도록
 - (3)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 제1, 2, 3 RUTC실현을 위해 옛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 틀을 온전히 갖추어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도록
 - (1) 나만의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시스템을 세워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실현하도록
 - (2) 교역자와 증직자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의 옛 틀에서 벗어나 전도와 선교로 현장을 살리도록
 - (3) 분쟁, 이념, 정신병, 중독, 혼합 민족의 5시대를 복음으로 답을 주어 치유하며 살아나도록
- 3백 지교회·3백 다락방·3백 전도현장에서 3천 제자가 세워지고, 송파·강동 지역복음화를 위한 1만 2천 제자, 수도권 복음화를 위한 20만 제자,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가 일어나도록
- 이 사역을 위하여 정운돈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증직자, 전 성도와 선교사님들에게 다섯 가지 힘(영력·지력·체력·경제력·인력)이 충만하게 내려지도록
- 히로시마침사당교회와 심주환 선교사님을 통해 히로시마를 살릴 1만 2천 제자가, 김현덕 선교사님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 살릴 12만 제자가, 피터 투트 선교사님을 통해 남수단 살릴 12만 제자가 세워지도록
-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램넛트 서밋을 세워 전 세계로 파송함으로써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 이 일을 마음껏 실현하기 위해 현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도록, 현당을 위한 참된 헌신을 누릴 경제가 모든 성도의 산업 현장에 회복되고, 교회 살릴 70인 비밀결사대와 300인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도록

■ 월간 / 주간 기도제목

-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100년의 응답을 향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 램넛트신학연구원(RTS)을 통해서 세계 신학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 살리는 목회자와 전도자를 든든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한 기도의 배경이 되도록
- 북미주산업인대회를 통해 산업인들이 새 틀을 갖추고 참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도록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17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최정웅 전정아 김경수 강승자 감대식 주재진 권혜경 유경형 리종화 김경환 최복순 김경태 전인숙 김원일 임근일 김종복 신승훈

300인 용사 (113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연규 이은숙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진수 박점순 최영철 최후순 최창영 박지영 허경열 홍승희 오국환 이은희 구자성 송영희 박동영 최진희 최명홍 이계욱 김영길 박혜숙 강현자 유승범 주은경 조남은 이은옥 이영순 박용재 양경심 이상춘 서희석 여동훈 백소정 이수용 이미지 서정례 박철남 나향님 이승재 이용근 김경희 채용민 이효숙 민경환 권은희 심주환 김현숙 정운돈 최신영 강요한 이명재 구원진 박희순 정세완 박희영 김석재 손태욱 김요셉 김혜정 감남숙 김성열 송길호 최신혜 배명자 신옥희 김순자 장성순 박근순 여상훈 박광현 왕진상 김선옥 오신자 최양호 김주영 배승찬 김종남 이신순 변연숙 김성순 백순덕 정향란 여준석 박인자 김복미 강경현 서성원 김미선 박성혁 장경희 김영진 이남현 김옥진 박봉기 이영희 정년영 박준석 양승욱 이희숙 최송화 박서진 김순이 장영호 양은숙 김태운 오영숙 주철우 정선희 공영호 김금남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 현당헌금 합계 : 67,814,622원

일반현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예금주:참사당교회) 국민은행 521001-01-037631(예금주:참사당교회)

현당현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예금주:참사당교회)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정웅 김요셉-김혜정 이희숙 이현규 신성민 전인숙 최영철 오국환 정영연 여동훈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정영균 라중화 김한-임경미 여준석-양경아 김정희 김요한-김지현 배승찬 양광심 임근일 최철규 윤홍광-장경숙 강현자 박철남-서정례 송영희-구자성 오신자 정년영 이근재 김형준-박현주 전정아 최신영 김경업 이명 김옥순 박영인 손완석 양은예 이정택-이은순 김은영 김경현-강소영 이은덕 손병순 김소라 김진자 정향란 채송아 한경숙 이주형 정예승 윤치현 김희광 박서운 강은혜-김정진 정문철-이선아 박선주 박광현-조영주 김효경 김경혜 최일숙 임소순 나경철-신현식 이숙자 박종열 손정환-홍명숙 손가을 손하늘 윤소옥 정민호 유경순 이계옥 김정연 백순범 도정호 최신혜 최두영 오주희 권은희 이순근 김태운 박정금 오영숙 배미선 김나경 이미숙 이효숙 장성순 이정미 김남숙 양은숙 김아리 김금남 이미자 박난순 이서은 강공이 조수영 박희영 장현규 송미경 김계자 오신자 김영희 김수득 임혜연 호민수 최승화 고진순 이정운 김수형 이영순 유승호 유충현 장미선 이은숙 박인자 임영순 김순호 이은희 임동영-장유진 도상철-채희은 김영진-최혜숙 여상훈-노선희 유영석-박승숙 최양호-오난희 유승범-주은경 홍정아-원철호 오이라 임혜미 최종인 박찬열 손가을 이이름 김미현 주예진 권세미 오은사 최중현 정수환 이서은 정민호 무명35
십 일 조	김요셉-김혜정 이희숙-박진순 최신영 최신혜 유경형-라중화 배승찬 채송아 이민수-김숙희 송인애 유경순 홍정아 김태운 김금남 조유연 이은옥 여동훈 이명재-구윤진 이효숙 김나경 이미숙 임근일 양은옥 최철규-한영화 김소라 양경심 임혜연 주철우-정선희 이영순 황인선-박준민 윤태자-김성재 김요한-김지현 김장균-임예진 김영진-최혜숙 이정미 유계숙 오국환-이은희 이용도-최재경 박서운 박종열-이숙자 정예승 장현규 여준석-양경아 나경철-신현식 유충현 강공이 윤소현 정세완 박희영 강예림 김경혜 정혜찬 박주은 정수환 정동훈 오이라 김승훈 정민호 무명
감사헌금	최신영 김수형-이현주 박희영 양경심 이효숙 도상철-채희은 유경형-라중화 박동영-최진희 이명재-구윤진 최신혜 정수환 최명홍-이계옥 이은숙 최양호-오난희 무명
RUTC헌금	김형준-박현주 양경심
일천번제	김형준-김민규
지교회	천우지교회
선교헌금	김요셉-김혜정 이희숙-박진순 이현규 최신영 최신혜 유경형-라중화 김현복 김지영-김민영-김근호 김현성-이미화 임근일-양은숙 김순호 김미선 김영진-최혜숙 박종열-이숙자 조현지 박철남-서정례 김영희 정세완-박희영 강예림 이정미 유경순 김성재-윤태자 유승범-주은경 유계숙 박동욱-김지영 박동영-최진희 이용도-최재경 윤홍광-장경숙 정예승 여준석-양경아 최양호-오난희 이은옥 이효숙 배미선 최철규-한영화 배승찬 양경심 임혜연 주철우-정선희 이영순 최창영-박지영 여준후 김시연 여선후 김재승 김하운 도성용 여수아 유준상 김윤주 김운성 박시은 신현옥 김민규 김시아 김하을 정유호 최하을 김요한 정수환 손가을 정민호 조수영 윤치현 박찬열 오이라 올림픽2 방이2 현당헌금 정운돈 이희숙 이현규 전정아 최신영 최신혜 유경형-라중화 정수환 오이라 정민호 박찬열 유경순 조유연 김경혜 여준석-양경아 정예승 이용도-최재경 박동영-최진희 유계숙 김영진-최혜숙 박동욱-김지영 최양호-오난희 유승범 주은경 김요한-김지현 이정미 김성재-윤태자 강예림 장미선 주철우-정선희 임혜연 양경심 배승찬 정세완-박희영 김영희 윤홍광-장경숙 김순호 임영순 장유미 임근일-양은숙 김지영-김민영-김근호 김현성-이미화 배미선 김나경 이은옥 채정우 채송아 이효숙 무명
장학헌금	박진순 이희숙 최신영 최신혜 유경형-라중화 박철남-서정례 이효숙 신승훈 김형준-박현주 김요한-김지현 오이라 유승범-주은경 박동영-최진희 윤홍광-장경숙 정예승 최양호-오난희 최철규-한영화 양경심 임혜연 주철우-정선희 이영순 임근일-양은숙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장현규 김영희 정세완-박희영 정민호 정수환
강단꽃꽂이	도상철집사 가족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차량 구입헌금(2차 목표액 : 3천만원)	현재헌금 합계 : 12,840,000원
--------------------------	-----------------------

2019 제1,2,3 RUTC발원

참사랑교회

오직예수

행복한교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진한 사랑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더라 (행4:12)

2019년 구역조직 - 1교구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담당교역자 : 김요셉 목사, 신성민 전도사 | 총무 : 주은경 집사

지역/ 전도인	구역	구역장	권찰	구역원(※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오금1	박인자	이은희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박점순 이신순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서석건 윤영애 서정호 서승현 최일숙 구다넌 유제숙
	오금2	김주영	주은경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정윤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진 윤순옥 이민수 김숙희 이하연 이하준 김효경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주중성 신성민 신규훈
	오금3	백소정	김지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최정용 전정아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김요한 김지현 김운진 김운서 김윤주 김윤성 김세희 조영희 장혁준 정다경 윤태민 윤예빈 정혜찬
2지역/ 이미자	방이1	양경아	조부영	이수용 이미자 이서은 이채은 이한수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여준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이은수A 문길순 김성열 오세원 김우림 김혜림 정철호 유경선 정동주 정동훈 김정혜 박은서 장미선 노은현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오은사 김채운
	방이2	한영화	홍미경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최종현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모연 윤기영 백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정순 김운섭 김명자 김성배 조현지 김복남
	천호	라중화	홍경아	유경영 라중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정민진 이영숙 나매연
3지역/ 김금남	잠실	조영주	김미선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최창영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김남숙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권구현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김옥천 전민식 구순자 김대옥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송파	장경숙	박승숙	김종복 김유수 김유은 임근일 양은숙 임혜미 임혜연 윤홍광 장경숙 윤 현 윤소현B 윤하영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이성수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김효민 이예지
	하남	김영희	김자영A	서성원 최명자 박동욱 김자영A 박시은 박라은 손완식 양은예 손보국 이종남 김영희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손병순 배운주 배미선 배윤경 이정택 이은수B 김경희A 현백규 전영중 이가원 조수영 강성식
4지역/ 오난희	오금4	박희영	김순이	정세완 박희영 정창호 김미현 정민호 윤두영 강창숙 윤수아 윤수지 권영숙 김순이 이명옥 윤봉녀 구성하 이영훈
	오금5	신혜선	권혜경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유성규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정희화
	오금6	오난희	이계옥	최양호 오난희 최고은 원철호 홍경아 강예은 강예림 박철남 서정례 이병부 김정열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업찬용

2019년 구역조직 - 2교구

- 교구장 : 정윤돈 목사 | 담당교역자 : 이희숙 전도사, 이현규 전도사 | 총무 : 이명 권사

지역/ 전도인	구역	구역장	권찰	구역원(※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5지역/ 양경심	올림픽1	장길순	이영순	이영순 서숙자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올림픽2	홍승희	정년영	정년영 허경열 홍승희 박준영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김정연 박정금 이아름 박준은 박지유
	올림픽3	이현주	황인선	박엽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박선주
6지역/ 홍승희	강서	채희은	서숙정	도상철 채희은 도성웅 박성혁 이하나 박주안 박주하 박세아 구황경 이선미 구이라 구지후 이종관 서숙정 이지환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민경 엄현식 최이름 엄지은 주철우 정선희 김경현 강소영
	강남1	이미숙	손혜옥	명충현 김수득 이미숙 김화랑 김해인 김경수 강승자 김대식 김석재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이해경 임소순 천혜숙 김경애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송인애 이윤민 이운건 황미야 김정진 강은혜
	강남2	김순호	박희순	안경호 김순호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박희순 최부현 임은진 최시원 최정인 양서준 김신혜 권세미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7지역/ 오신자	오금7	이명	김복란	구자성 송영희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이기덕 김복란 백순덕 이명재 구윤진 김창근 임예진 김하윤 김재승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김재두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김계자 박종열 이숙자 이재민 이운상 정수환 김승훈A
	오금8	최혜숙	유경순	오신자 손정환 홍명숙 손기을 손하늘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이군재 이순근 아산나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이 하 안지용 안수현 김순자 최명자B 강영석 김환희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오금9	이정미	이선아	이상구 이정미 이세복 이민형 이주형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운 안신영 김요셉 김해영A 김하을 한상만 이영주 한서영 한준열 김창대 이정미 김아리 김아영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위준승
8지역/ 송영희	문정	송미경	고진순	장영근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고진순 방주는 유승민 마운경 이용근 김경희B 이동석 이동현
	장지	최신혜	이미화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박진순 이희숙 박주봉 박주승 민경환 권은희 박희자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손보미 손제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가락	이은숙	김태운	정연규 이은숙 김태운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김옥순A 정종규
9지역/ 박영인	거야 마천	최후순	이순덕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호민수 박순봉 정은숙 박지현 천 용 오영숙 김장호 김옥순B 정광아 이 석 김재우 유일이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이정운 이순덕 이영경 이현규
	성내 둔촌	정향란	장영호	진희성 김중남 오인태 김자영B 오희림 오희운 정향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고덕	박영인	한경숙	신승훈 박영인 신동운 한경숙 변지영 김성재 윤태자 김준석 김선욱 이춘화

세상의 틀을 바꾼 다니엘과 세 친구 -복음으로 여는 다니엘서-

다니엘 1:3-16, 마태복음 24:15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부 문제, 인간문제, 국가문제가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인간의 문제, 개인문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적인 학문을 들었지만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았고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모든 것을 알고 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라고 나와 있다. 다니엘을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응답이 쏟아진 인물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세 나라의 총리를 했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 몇 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의 왕들이 있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아직 털 망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 오래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때 당시 왕은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너희들이 이러다기는 멸망한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쓴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시아의 메세지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된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 애굽, 앗수르, 바벨론에게 당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 나라와 왕이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총리를 하게 되지 않는가. 그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을 일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시작과 끝까지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남유다 왕국은 말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번에 걸쳐 침략을 당했다. 그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BC.605년의 첫 번째 침공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다니엘은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온 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인 BC.538년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다니엘이 13살에 끌려왔다면 16세에 왕 앞에 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67년 후인 BC.538년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했다면 거의 80세 이상 산 것이다. 그 때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1차 침공 때는 무너지지 않았다. 2차, 3차 침공인 BC.586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기물을 파괴했다. 그 후로 약 70년이 지난 후, BC.516년 정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유대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던 것과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던 세상이 틀과 모든 준비를 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것이다. 세상의 틀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었지만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가문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에 있길 축원한다. 이것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1. 북 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남 왕국 유대백성이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들은 이사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와 같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나와 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지혜를 받아야 한다. 인생을 보면 인간은 희망이 없다. 학교,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배드릴 때 집중 안 한다. 예배와 신앙생활에 집중해보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램넛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2) 유대인들의 문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성전에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구원의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양의 언약의 피. 이 복음만 증거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리싸움하고 주장하고 율법을 강조한다. 그것은 다 틀린 것이다. 법인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며, 찬양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며,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싸워야한다. 그 시작이 강단메시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다.

(3)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드리면서 약한 백성을 착취하고, 제사도 드리며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켰으며 불의와 악행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사와 선지자는 이사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한다.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홀히 생각하고 배플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

(4)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BC.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여호아김 왕 때는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의해 세 번이나 침공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2.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시대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을까?

(1) 이사와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 선지자들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영혼 깊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 될 만큼 묵상했던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던 증거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은 분명히 예레미야의 책을 깨달을 정도로 깊이 읽은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성경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았던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세오경과 특히, 선지자 이사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골수 같이 지혜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어떤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다. 다니엘 1장 12절 서두에 보면 ‘청하오니’ 하고 설명한다. 환관장이 ‘너희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난다.’ 이야기하니까 ‘10일 동안 채식하도록 한 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정확하게 잘 알려진 것만 먹기를 바란다. 그것이 깊은 음식이다. 그리고 조금 먹으면 된다. 그리고 깊은 삶, 여유 있게 살기를 바란다. 깊은 운동도 해보라.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춰야지 바른 운동, 건강법인 것이다. 영성도 그러한 것이다. 합리적인 때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 다니엘도 이야기하되, 설득력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는가. 왜 그랬을까 묵상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 목 달아날 수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승리했어.’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2)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3)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잡혀먹힐 지라도 3오늘과 1일3작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1일 3작하라고 했더니 ‘세 번 정시기도 어떻게 해요?’ 한다. 어제 대학청년부 미션홈에서 1일 10작을 하는 것 같다. 아침 8시, 9시, 10시. 정시에 5분 묵상한다. A4용지에 묵상내용이 딱 찬다고 한다. 1일 24시인 것이다. 5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속지 않는다고 포람하더라. ‘대단하다. 정말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과 같은 응답을 받는구나.’ 생각했다.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이러한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을 틀을 바꾸는 응답의 주역이 되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없다. 한 번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표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CVDIP가 분명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응답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CVDIP는 명확하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였지만 3서밋의 응답을 받았다. 모두 지도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와 언약을 24시간 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내셨다.

2. With, Immanuel, Oneness의 축복을 사실적이면서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을 정도로 체험했고 실천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단순히 유대왕국의 회복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본 것이다.

3.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7배나 뜨겁게 끓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았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을 죽이고 삼킬 수 없음을 믿기를 바란다. 언약만 붙잡으라.

4. 다니엘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았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이고, 7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수 천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과 메대 바사아 페르시아, 로마, 말세지말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모든 예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5.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전 세계와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축복을 받았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중간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있다.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런데 잠언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참된 지혜자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과 이 세상의 틀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만큼 그리스도로 결론 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한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작사 류경수
작곡 유희영

♩=138

A D/A A D/A E/G#

하 나 아 무 도 이 - 는 수 없 - 이 - 는 그 - 린 것 - 이 - 는

5 F#m7 D/FF F#m7 D/F#

하 나 아 무 도 이 - 는 수 없 - 이 - 는 그 - 린 것 - 이 - 는 하 나

9 D E/D C#m7

아 무 도 - 는 수 - 없 - 이 - 는 그 - 린 것 - 이 - 는 하 나 아 무 - 도 이

13 Bm7 F#m7(9#24) D/E

- 는 수 없 - 이 - 는 그 - 린 것 - 이 - 는 하 나 아 무 - 도 이

17 Dmaj7 E/D C#m7

모 르 게 - 내 삼 의 주 - 인 이 - 는 나 - 이 - 는 게 아

21 Bm7 G E#m7(9#84) E

모 르 게 - 인 약 의 여 정 - 소 에 - 는 나 - 이 - 는 제 아

25 A D/A A E/G#

아 - 았 - 네 - 짐 싣 태 의 - 삼 삼 -

29 8 F#m7 D/F# F#m7

하 나 - 이 주 - 드 시 - 신 언 약 - (속 에 서!)

33 Dmaj7 E/D C#m7 F#m7 E/G# F#m7

하 - 나 - 이 - 만 - 드 신 - 내 그 꿈 - 속 에 서

37 Bm7 E#m7(9#84) A

하 - 나 - 이 - 만 - 드 시 - 는 그 꿈 속 에 서

세 파 상 으 - 로 세 파 상 으 - 로 바 - 꾸 리 -

Fine

교회를 섬기는 아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전도사	이희숙 010-9491-6347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용 010-5260-5511	교육전도사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김요셉 010-2821-2414		신성민 010-6600-6091	관리집사	김수득 010-4603-0888
전도인	송영희 오신자 홍승희 양경심 최진희 이미자 박영인 오난희 김금남				
장로	(사무) 유경형 최영철 주재진 윤두영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김종복 신승훈 김성열 장영균 리종화 김현 허경열 서성원 여준석 김경희 김요한 배승찬 양경심 김석재 임근일 최철규 윤희광 (협동) 이근재 박현주 전민식 (해외) 김경수 강승자 김선옥 최봉식 (은퇴) 명충현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서정례 송영희 오신자 (명예) 이한수 김윤섭 박철남				
찬양대	(지휘) 황인선 이종관 (오르간) 김신혜 (피아노) 신자연 이서은 최송화 최후순 김지현 최신영 윤소현 (바이올린) 문경화 임예진 강예은 오유라 김재우 최보인 김혜림 고정협 (플루트) 최준현 강소영 (첼로) 조유연 (클라리넷) 고정호 (트럼펫) 김경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낮예배	1부오전 7:30	1층 비전홀	태영이부	수 오전 11:30	1층 비전홀
	2부오전 11:00	5층 참사랑홀	유지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1랩넌트실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2:30	5층 참사랑홀	어린이부	주일 오전 9:00	1층 비전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5층 참사랑홀
	수 오후 7: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금요심야기도회	금 오후 8:00	1층 비전홀	소망부	수 오전 11:30	2층 소망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1층 비전홀	사랑부	목 오전 10:30	3층 아트홀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2층새가족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예원교회
1단계제자훈련	주일 오후 1:20	4층자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예원교회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0	3층주간보호센터	핵심훈련재방송	주일 오후 1:20	5층 참사랑홀
개인화기도수첩	주일 오후 1:20	4층프로그램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4:00	5층 참사랑홀
치유상담	주일 오후 1:20	3층데이케어센터	강남노회전도학교	월 오후 2:00	1층 비전홀
태영이사명자	주일 오후 1:20	3층제1랩넌트실	태영아전도학교	목 오전 11:00	1층 비전홀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제2랩넌트실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1층 비전홀
중고사명자	주일 오후 1:20	3층제3랩넌트실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3:00	임미누엘서울교회
군선교부기도회	매월 둘째주일 오후 1:00	5층 참사랑홀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국내외선교지

해외선교지 (3)	해외파송자 (30)
(일본 히로시마참사랑교회) 심주환-김현숙 (필리핀) 김현덕-조성신 (남수단) 피터 투트	(미국) 최형란-권순민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 이슬 정예준 유세정 박준영 허지선 (UAE) 김선옥 (호주) 박영준-김수미 박영환 (독일) 배영광-정우연 (네덜란드) 배고은 (영국) 박경아-니콜라 정혜찬 (덴마크) 김준일-최숙영 (터키) 김경수-강승자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일본) 이정민 정민진 오유라
협력단체 및 국내의 선교후원지 (8)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RUTC방송국, 인터넷총국, 필리핀다락방신학교, 코스타리카 시온교회, 국제한국입양선교회, (사)서로사랑, 총회군선교회	군파송자 (4) (육군) 여종원 이지오 김지후 (공군) 고정호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에 소속된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2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렘넌트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어린이 비전스쿨 운영,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